



가톨릭마산

대림 제1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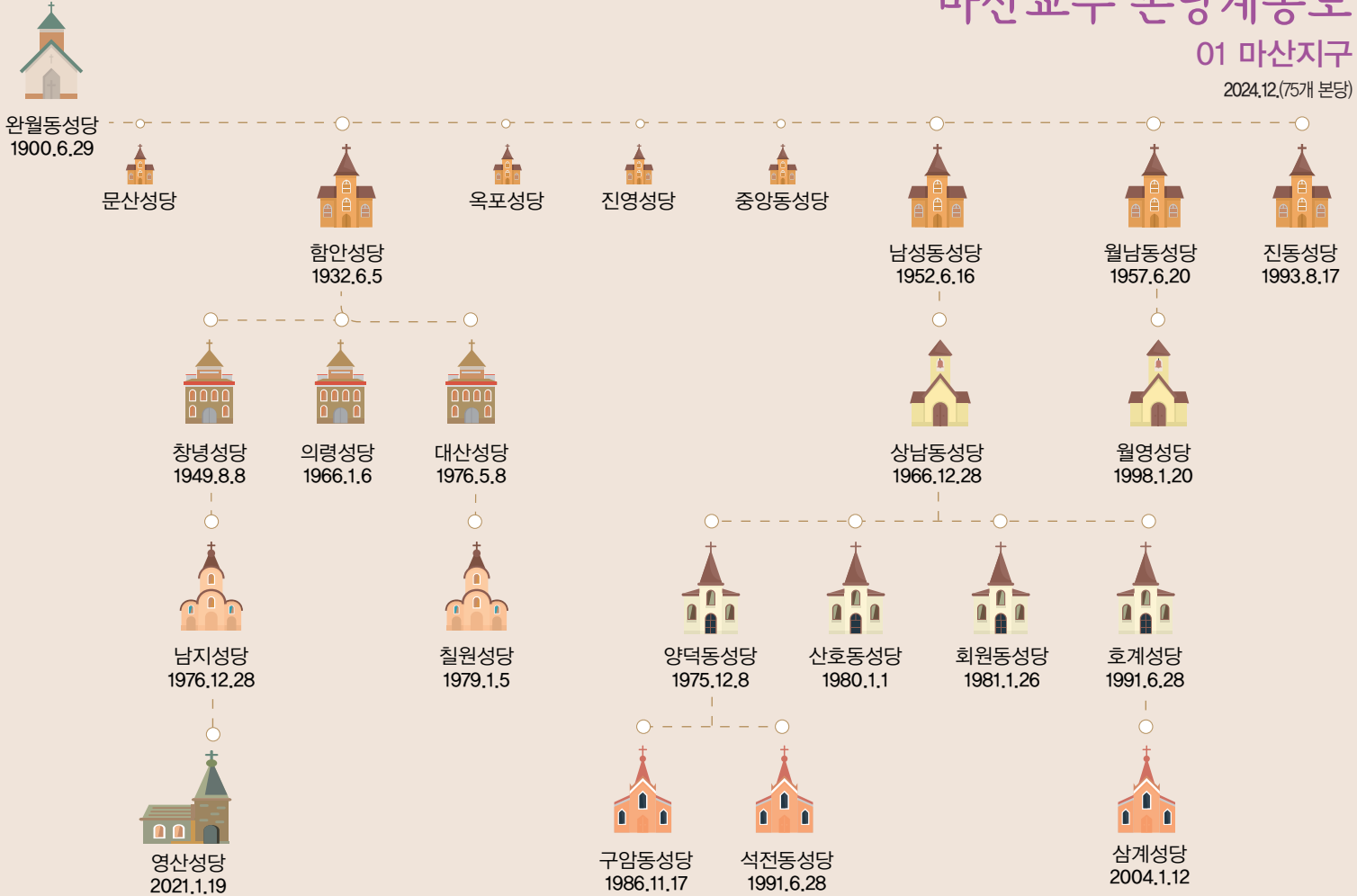
2024년 12월 1일

제2646호

마산교구 본당계통도

01 마산지구

2024.12.(75개 본당)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 다해 대림 제1주일부터는 마산, 진주, 거제, 창원 지구 순으로 본당 계통도를 보여드리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본당 순으로 현 본당 사진과 역사적 사진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예레 33,14-16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제 2 독 서 1테살 3,12-4,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루카 21,25-28.34-36

영 성 체 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준비하며



서시몬 시몬 신부
청소년국 부국장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며, 그분의 탄생과 재림을 신비롭게 겹쳐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탄생과 재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재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탄생과 재림 사이의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2독서에서 언급하듯,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하느님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세속의 욕망에 정신이 팔려 하느님을 놓치거나, 세상일에 매달리다 마음이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물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며,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탄과 재림의 때에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 곁에 오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매번 미사에서 성체성사를 통해 그분의 오심을 체험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분주하고 약해져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늘 우리 곁에 오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그분 덕분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그분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일상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소박한 삶과 혼한 일상,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경이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마련해주신 삶 속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현존 속에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희망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평화롭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상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소박한 삶과
혼한 일상,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경이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추계 사제총회

교구 추계 사제총회가 11월 12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사목국장(최태준 필립보 신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각 국별로 2025년 사업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인사와 당부의 말로 총회가 마무리되었다.





병인순교 100주년 기념성당



성인 유해실



절두산 표지석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

민창홍 요한 시인 (시, 글, 사진)/ 가톨릭문인회

검은 연기 뿜으며 양화진에 들어서는 군함
병인년 조선은 풍전등화(風前燈火)다

머리는 강물에 셀 수 없이 떨어지고
붉은 피는 붉은 노을로 떠올라

봄 버들꽃으로 복적대던 나루
믿음은 거룩하게 꽃이 피고

무명 순교자 홀연히 떠난 자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며 기도하오니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한 형제인 삶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것

잠두봉 비추는 아침햇살이며
한강 붉게 물들이는 저녁까지
부활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소서

위정자의 등불 바람에 타올라
죄 없는 믿음에 갈날은 거세게 춤추고

참혹한 순교터가 된 버들꽃나루여
서울 한 복판에 우뚝 선 절두산이며
당신을 기리는 탑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버티던 흰옷 입은 사람들

절두산 성지

절두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일대의 한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머리를 높이 든 형상이라 하여 가을두, 누에의 머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잠두봉이라 부르던 곳이다. 바로 아래 양화진 나루터에는 한강을 통해서 각 지방에서 조세곡 수송선과 어물, 채소 등을 실은 배가 드나들었다. 양화진 주변은 잠두봉과 어울려 이름난 명승으로 많은 풍류객과 문인들이 뱃놀이를 즐기면서 시를 지었던 곳이기도 하다. 1866년 2월 프랑스군함이 천주교 탄압을 문제 삼아 한강을 거슬러 양화진과 서강까지 진입하였다. 이에 격분한 대원군은 수 많은 천주교인들을 잠두봉에서 목을 베어 참수케 한다. 그 뒤로 머리를 잘랐다 하여 절두산(切頭山)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다.

서울교구는 1956년 절두산 부지를 매입하였고, 1967년 병인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성당과 박물관을 준공하였다. 1997년 우리 역사의 중요한 유적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 제399호(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로 지정되었다. 기념성당 제대 뒤쪽 지하에 위치한 성인유해실에는 현재 27위(기해박해 순교자 9위, 병오박해 순교자 1위, 병인박해 순교자 17위)의 순교성인과 무명 순교자 1위가 모셔져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골로 3,16)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신앙생활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한때는 미사가 중단되었고 참석도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활기찬 신앙생활이 가능해졌고 복음 선포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조금씩 믿음의 기쁨을 체험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야 확신에 찬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사 참여와 전례 생활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자주 만나야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오면 삶에도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 성체성사를 가까이하길 권합니다. 정성껏 성체를 모시면 그만큼 예수님의 살아있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주님께서 남기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54) 가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체를 모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사가 중단되었을 땐 성체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체조배를 통해 삶의 힘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없이 감실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예수님께 하면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성체조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을 느끼도록 합시다. 깊은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더 자주 성체조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5분의 성체조배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교회 가르침은 모두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그분 부르심의 응답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필요했던 지혜를 어느 날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때로는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인생은 순례길입니다. 누구나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일에 매달리다 보면 천상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세상이 전부라 여기기 시작하며 보이던 것마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영

적인 말도 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영성 생활은 내 인생과 연관된 주님의 뜻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도 술한 사람을 만나고 술한 사건을 겪습니다. 그 모두가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보이지 않는 힘이 사건과 만남을 주관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와 성체조배를 통해 가끔은 묵상해야 합니다. 사건과 만남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유익한 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알게 되면 말씀의 의미 역시 깨닫게 됩니다.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그만큼 기쁜 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만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그날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넓은 가치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질과 소유를 최고라 외치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역시 쾌락 제일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신앙인이 요구됩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겠습니다.(루카 12,36)

교우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진정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니다.(1요한 4,16)

|실천 사항

1.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 꼭 미사 참례를 합시다.
2. 매주 1회 평일미사에 참례하며 영성체를 합시다.
3.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자주 성체조배를 합시다.
4. 성지순례와 공소방문을 자주 합시다.
5. 본당 사도직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기도하며 활동합시다.
7. 청소년시설과 복지시설에 도움을 줍시다.

2025년을 준비하는 대림 첫 주일에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교구장 서리 동정

신앙대학 졸업미사

일시: 12월 8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교구/본당

교구 2학기 성경공부 종강

일시: 12월 3일(월) 장소: 각 본당

장례지도사 3차 교육

일시: 12월 6일(금)~8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앙대학

일시: 12월 7일(토)~8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2026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면접

일시: 12월 8일(주일) 10:00
장소: 마산교구청

평신도 신앙대학 제29기 모집

자격: 영세한 지 2년 이상, 만 65세 이하의 본당주임 사제 추천을 받은 자
모집: 선착순 40명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기간: 2년과정(연10회) 1박2일 진행
등록비: 연 620,000원(교육관 2인실 숙박비)
접수: 입학원서(본당사무실 비치) 사목국 제출(우편 또는 방문) 마감: 12월 31일(화)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 위원회/기관/단체

12월 수어미사

일시: 12월 1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2월 봉사자 지도모임

일시: 12월 2일(월) 14:00/ 장소: 옥봉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의: 담당자 010-5116-2288

▶ 기 타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 (수) 14:00~20:00
장소: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2층
내용: 정서적 고통, 인간관계, 면담고해성사
상담자: 강윤철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11월 11일(월)~25년 2월 14일(금)
문의: 02-745-8399, <http://ci.catholic.ac.kr>

2024 행복한 겨울캠프 접수 안내

일시: 2025년 1월 3일(금)~5일(주일) 2박 3일
장소: 양업고등학교(043-260-5076)
대상: 현재 중학교 1, 2학년
접수: 홈페이지 12월 17일(화) 10:00~ (선착순)
회비: 15만원, 접수확정 문자 후 이체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1월 개강, 각 6~8주

-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종제), 이진현 신부
-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 구약성경 아카데미: 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최지원 수녀
-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성형영성의집 별관 ‘침자리’ 이용 안내

단체: 최대 13명 1일 숙박 20만원
개인피징: 최소 2인 이상 1일 숙박 3만
식사 개별 취사
문의: 010-8025-9759 그리스도의성혈홍충수녀회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11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연말연시피정(한라산포함): 12월 30일~1월 2일
한라산눈꽃산행: 1월 17일~19일, 1월 23일~25일, 2월 8일~10일, 2월 14일~16일, 2월 22일~24일
생태순례: 3월 15일~17일, 3월 22일~24일, 3월28일~30일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이시들 목장내 성지에서 쉽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2025년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연말연시(한라산눈꽃산행): 12월 29일~1월 1일
한라산포함: 1월 11일~13일, 1월 16일~18일, 1월 20일~22일, 1월 24일~26일, 2월 1일~3일, 2월 7일~9일, 2월 15일~17일, 2월 21일~23일
접수: 02-773-1455/ 064-796-4182

호계본당 제17대 사목협의회

회장	조훈(토마스아퀴나스)
남 부회장	임완택(요셉)
여 부회장	허미숙(안젤라)
총무분과위원장	김순철(마티아)
전례분과위원장	김숙임(클라라)
복음화분과위원장	정혜영(마리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양자애(레지나)
교육분과위원장	허동호(프란치스코)
구역분과위원장	최수연(베레나)
청소년분과위원장	이형국(가블로)
가정분과위원장	조성길(안셀모)
시설분과 위원장	강상수(야코보)
홍보분과위원장	노민현(프란치스코)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2월 2일(월) 19:00	남성동성당	요나 (성경 속 인물세미나)	김대영 베드로 신부 (전주교구)	김대영 베드로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2월 14일(토) 14:00(그 외에는 문의 바람)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루카 수녀)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욕지도 30년 전복죽 특허

9만원
5만 5천원

12팩(6인용)/중량 300g±5%
/ 전복,해삼,뽕소라 및 재료
100%국내산 / 전국무료택배

전복장, 소라장 주문판매

김금자 엘리사벳
010.3571.5086 동영시 옥지면 사촌이랫길 112 혜나촌

최봉원 야고보 신부와 함께하는
대만 문화탐방 및 성지순례

25년 1월 9일(목) 출발(4박5일)
1인 155만원(변동가능, 선착순 25명)
주관: 나라여행사
문의: 설민경 루치아 010.9039.5667

제주, 전국 167곳 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3박5일 120만 원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4일 120만 원
과달루페성모(멕시코) & 마추피추(페루)
10박12일 720만 원

마르코 투어
오원수 바오로 **010-4239-1929**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수목장·평장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학성남 18길 2, 1층(학성동)
김 중 윤(클레멘스)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일정
산티아고 도보순례 800Km
25년 3/30 599만원(+2,100유로)
070-4086-0207 catravel.co.kr



마산교구 평협 생태영성 아카데미 교육

교구 평협(담당: 주용민 리노 신부, 회장: 이한규 안드레아) 생태영성 아카데미 교육이 11월 9일(토) 교구청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교육은 교구내 각 본당신자, 교구단체 회원, 평협위원 등 130 여 명이 참석하여 대강당을 꽉 채웠다. 교육 내용은 대구대교구 정 홍규(아우구스티노) 신부의 마산교구의 초석을 낳은 에밀타케 신부와 왕벚나무를 곁들인 생태영성 강의를 비롯하여, 경상국립대 이치우(스테파노) 교수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 국제가톨릭형제회 김광숙(노엘라)의 경북 고령군 꼬미마을의 실천사례로 깊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에 관한 신자 교육이었으며, 휴식 시간에는 우리농(마산교구)에서 제공한 간식을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갖는 등 의미있는 교육 일정이었다.



그라츠 자매교구위원회 위령미사



그라츠 자매교구위원회(위원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에서는 지난 11월 14일(목) 오전 10시 주교좌 양덕동성당(주임: 정진국 바오로 신부)에서 <마산-그라츠> 자매교구를 위해 헌신하고 선종한 분들을 기억하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교구장 서리 신은근 신부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자매결연을 위해 애쓰시고 먼저 하느님 품으로 가신 분들, 특히 박기홍 몬시뇰과 하 마리아 선생의 모범적 신앙을 되새기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 고 권고하였다. 위원장 최문성 신부는 미사에 함께한 사제들의 그라츠 교구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 교구는 2021년 그라츠-섹카우교구와의 자매결연 50주년을 '기억과 감사'라는 주제로 경축하면서, 매년 위령성월에 자매결연의 역사 속 인물들을 기억하는 위령미사를 봉헌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내가 기억하는 사제 신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구 사무처에서는 교구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교구보에 "내가 기억하는 사제" 코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신 우리 교구 선종 신부님들의 모습을 추억하며, 돌아가신 신부님들과의 특별한 교류와 기억을 간직한 신자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A4 용지 12pt 사이즈 2/3 정도의 내용

필수 기재사항: 소속 본당/성명/세례명/연락처

보내실 곳: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 담당
(메일) media2@cathms.or.kr





신학은 발전하는가?

황봉철 베드로 신부/ 성사전담

주님의 성탄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새 번역: 2005년)

다른 번역들

- 라틴어 번역본(vulgata: 5세기초): 좋은 의지의 사람들(hominibus bonae voluntatis)
- 영어: 킹 제임스(1611): 좋은 의지의 사람들(good will)
- 영어: 굿뉴스(1992): 그분이 맘에 들어 하는 사람들(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 독어: 루터 번역(16세기초): 마음에 맞음(den Menschen ein Wohlgefallen)
- 독어: 통일번역(1980): 그분 은총의 사람들(Menschen seiner Gnade)
- 가톨릭: 신약성서(1962): 마음이 좋은 사람들
- 가톨릭: 공동번역(1977):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
- 가톨릭: 200주년(1991): 그 사랑받는 사람들
- 가톨릭: 성경(2005):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
- 개신교: 관주번역(1956):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 개신교: 새 번역(2012):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 중국어번역(1968):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主愛的人)
- 일본어번역(1992): 임금의 맘에 맞갖을 사람들(御心適人)

정리하면

옛날 번역들: 좋은 의지의 사람들; 마음이 좋은 사람들

현대 번역들: 그분이 맘에 들어하는 사람들; 그분 맘에 드는 사람들

전자는(불가타; 킹 제임스; 가톨릭 신약성서) 즉 “좋은 의지의 사람들”이란 착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말하면 착한 마음을 가지든, 좋은 의지를 가지든, 그 주체가 사람입니다.

후자는(영어-굿 뉴스; 독어-통일번역; 중국어, 일본어 번역; 우리말- 200주년, 성경 그리고 개신교의 새 번역) 즉 “그분 맘에 드는 사람들”, “그분 은총의 사람들”이란 그분, 즉 하느님이 맘에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체가 하느님이 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느님의 맘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희랍어** 본문은 엔 안트로포이스 에위도키아스(εν ανθρωποις ευδοκίας)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관계문이지만, 희랍어 본문에는 한 단어인, **에위도키아**(ευδοκία)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모두 9번 사용되고 있는데, “선하신 뜻”, “소원”, “좋으신 뜻”, “선의”, “호의” 그리고 “그분 마음에 드는” 등으로 한 단어, 두 단어 그리고 관계문도 있습니다.(마태 11,26; 루카 2,14; 10,21; 로마 10,1; 에페 1,5,9; 필립 1,5; 2,13; 2테살 1,11)

우리말도 희랍어 본문처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총애”나 “은총” 떠올려 봅니다. 총애나 은총은 윗분이 아래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애(은총)의 사람들에게 평화!** 총애와 은총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희랍어 본문에 맞게 우리말도 한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